



남원시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관한 2016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2일 밝혔다.

남원시 예산효율화 '우수'

인센티브 2억원 받아... 예산동아리 발굴로 농가소득 크게 기여

남원시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관한 2016 지방재정개혁(예산 효율화) 대회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010년에 처음 우수 단체로 선정된 이후, 7년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그동안 대통령상 2회, 장관표창 5회를 수상하면서 총 인센티브 17억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자치단체에서 지방

재정개혁 우수사례 3개분야 290여건이 출품되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0개 자치단체가 현장 발표를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되었다.

남원시는 "지역브랜드를 활용한 재정정보로 자치단체 최초 로얄티 시대를 열다"를 출품했다.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동아리의 독특한 아이템 발굴로 선정된 주요내용은 남원추어탕을 이

마트와 협약하여 판매금액의 3%를 남원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또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꾸라지와 시래기를 남원산만 사용하는 협약으로 귀농귀촌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동아리 회원들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여 남원지역 대표음식인 남원추어탕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우리고장 문화유적지 현장답사

순창군 귀농·귀촌인 대상... 백양사 등 방문

순창군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향토문화를 살피고 그 가치와 창의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고장 문화유적지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지난 1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총37명의 귀농 0104귀촌인이 참여 하였으며, 쌍치면의 전봉준 피체지를 시작으로 복흥 구암사 부도전, 백양사 등을 방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군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지역을 잘 이해하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문화탐방이 끝난 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 문화와 귀농생활에서

어려운 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양환욱 귀농귀촌협의회장은 "귀농·귀촌인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모르면 순창을 알 수 없다"며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은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순창 인으로써 거듭난 만큼 자부심을 갖자"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지역문화유적지 현장답사 이외에도 지역 마을과 연계한 우수 농장을 선정해 농장 방문사업과 멘토 멘티 사업 등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산업과 임시거주지인 귀농인의 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장류사업소,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산·학·연·관 연계 산업관광프로그램·전통장문화학교 등 운영

순창군 장류사업소가 '2016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통장류와 관계된 다양한 진로체험을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처를 대상으로 정부가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해 진로체험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5개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순창군 장류사업소는 그동안 전통장에 대한 교육과 문화확산을 위해 산·학·연·관을 연계한 산업관광프

로그램, 전통장문화학교 등을 운영해 일반인들이 우리전통문화인 장류에 대해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류사업소의 진로체험은 일반적으로 학교, 연구소, 지자체, 기업 등에서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장류연구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장류(주), 한국절임(주), 대상(주), 사조산업, 순창고추장마을 제조기능인 등이 참여해 융합형 진로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공무원, 연구원, 식품품질관리자, 전통식품기업 등 전통장류와 관계된 다양한 진로체험과 현장을 융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타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전통장에 역사와 문화, 기업관리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올해 장류사업소는 학생, 주부, 직장인, 농업인 등이 전통장문화학교 프로그램에 500여명, 산업관광 프로그램에 3,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공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된 장류사업소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주어지며, 3년간 인증효력기간을 갖는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영어·수학 전략적 학습법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정확하고 다양한 입시정보와 최신 입시경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수능학습전략법 및 대학입시설명회'는 박우정 군수와 고창고, 고창여고 등 지역 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군이 주관하고 강남구청이 후원한 이번 입시설명회는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 유명강사진과 입시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능대비 학습방법과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

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날 최명희 강사는 영어 과목의 전략적 학습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정준교 강사는 수학 과목의 전략적 학습법을, 유웨이중앙교육 이승혁 입시상담실장이 수시모집 전형별 지원 준비 방법 등 최신 입시정보를 분석해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내년에 고3이 되는데 수능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이 컸다"며 "강사님들이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입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계획을 잘 세워서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화의거리

남원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이흥재)는 지난 2일 오후 2시 남원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겨울철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와 겨울철을 맞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 당부와 소방법규의 안내를 통해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 됐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방법,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요령,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남원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으로 다시 한 번 화재예방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영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제설기동반 발대식 가저

고창군(군수 박우정) 심원면이 겨울철 폭설로 인한 마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원면 제설기동반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2일 심원면사무소 광장에서 열린 발대식은 트랙터 운전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심원면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집중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면내 상습 결빙구간 4개소와 제설작업 구간 8개 노선 47여km에 대해 상시 트랙터 등 제설기 장비와 활용한 제설 기동반을 운영하고, 폭설로 인한 긴급 복구 시에는 굴삭기, 덤프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내 집 앞 눈 내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사랑나눔 김치담그기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지난 2일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탈북민 및 다문화가족 등 50여명을 초청하여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체험 행사는 순창경찰서와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서한복)에서 주관하여 2011년도부터 매년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장 담그는 방법을 체험하고 어려운 다문화 가족 및 탈북민과 함께 한국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를 함께 나누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윈터김앤(베트남)은 '한국에 시집와 시부모님이 담귀 준 김치를 얻어먹기만 했는데 직접 김장담그기를 해보니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다문화가족과 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감사의 말을 했다.

서한복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음식인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봄으로써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하루빨리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규은 서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인 탈북민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해 순창경찰은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